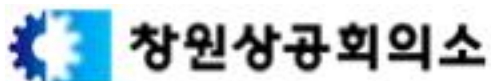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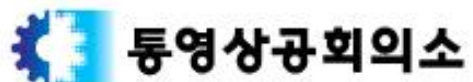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조속 결정 건의

2021. 6

- 건의처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사)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사)내서기업인협의회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조속 결정 건의

I. 현황

- 2008년 개통된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폭 20m, 길이 1.7km의 왕복 4차선 다리로 창원시내의 교통량 분산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 특대형차 기준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출퇴근 등 상시 이용자를 위해 20% 할인권 제도(소형차 기준 2,000원, 특대형차 기준 4,000원)를 병행하고 있음.
- 상시 이용자를 위한 할인권 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출퇴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민 사이에서도 높은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주요 교량의 km당 통행료를 보면, 마창대교가 1,471원/km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경상남도와 (주)마창대교와의 협약에 의하면 오히려 2022년에는 3,000원, 2030년 3,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

경남·부산·울산지역 민간투자사업 주요 교량의 km당 통행료

다리명	통행료 (소형기준)	길이 (km)	사업비 (억원)	km당 통행료 (원)
거가대교	10,000원	8.2	1조 4,397	1,220
마창대교	2,500원	1.7	2,648	1,471
울속도대교	1,400원	3.6	4,200	389
부산항대교	1,400원	3.3	5,384	424
울산대교	1,200원	1.2	5,398	1,000

※ 자료 : 경상남도

II. 통행료 인하 필요성

- 창원시 마산합포구(진북면, 현동, 내서읍 등)와 인근 시군(통영시, 고성군 등)에 위치한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과의 부품·자재 수급은 물론 수출을 위한 부산항신항으로의 이동을 위해 빈번하게 마창대교를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타 교량에 비해 비싼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창원국가산업단지과 해당 지역 간의 연계 성장의 걸림돌로 되어왔음. 향후 통행료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당지역으로의 추가적인 기업유치 요인도 발생할 것임.
- 또한, 해당 지역 간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싼 통행료는 상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실제로 창원상의에서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행사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근로자들의 마창대교 이용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 해당 지역 내 출퇴근 근로자들이 마창대교를 이용함으로써 창원시내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통행료 할인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마산합포구나 인근 시·군 지역 기업들의 구인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2015년 개장 이후에도 물동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가포신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가포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 물리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동량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에 현재 가포신항은 자동차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지역 내 물동량을 자연 발생시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도청소재지인 창원시와 인근 시·군 주민들의 이동 부담 경감은 물론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통영 등 남해안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행정·문화·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특히 창원시 구산면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된(당초 창원시 구산면-거제시 연초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는 요인이 될 것임.

Ⅲ. 건의

- 최근 마창대교 요금 결정권을 가진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와 통행료 인하 문제를 포함한 통행료 기준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지역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등 지역 내 인프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1년 6월 8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 상 길

내서기업인협의회 회장 손 중 섭